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해고자소식

<18호>

원직복직 쟁취!
구조조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 발행일 : 2018년 04월 10일(화)

▷ 발행인 : 이환태, 최병률, 한근우

조합원 동지들! 우리의 미래와 단결을 위해 해고자 생계비 지급 중단, 천막농성 중단 결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해고될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중고등 학생,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안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고를 원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환태, 최병률이 2013년 해고되었을 때 바지사장은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을 얘기했습니다. 회사와 상사(소장과 계장)에게 예측되다시피 매여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회사나 상사에게 보고나 허락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대표이사과 면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환태의 경우는 무단결근을 얘기했습니다. 지회의 교섭 때문에 몇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근태계를 제출하였고, 또 사전에 상사에게 결근이유를 보고하고 대체근무자까지 직접 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얻어졌습니다. 법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투쟁에서도, 내년 투쟁에서도 누군가는 해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하청 사장놈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끊고, 해고자들이 7개월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진행한 천막농성을 중단하라고 한다면 앞으로 해고될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고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면

누가 앞장 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비정규직은 앞으로 수많은 투쟁을 해야 합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극심한 차별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정규직화 투쟁은 소송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서 볼 수 있듯 과감하고 끈질긴 투쟁이 있어야만 법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3월 16일 대의원

대회 결정을 보면서 누가 앞장서 싸우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현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싸우다 해고되면 버림받는데 뭣하러 가입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원합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할 대상은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해고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실 동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열을 일으킬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저희 해고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해고자들의 문제이며, 민주노조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고자들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힘있게 버텼습니다. 7개월 동안 찬바람 맞아가며 천막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왜 천막농성을 중단해야 합니까? 사장놈들이 좋아할 결정 아닙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하루 빨리 잘못된 결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시오

지난 5년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이었지만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 이후의 시간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올해 지회신분보장 기금예산이 3억이 넘습니다. 해고자들은 천막농성으로 이제야 해고자들의 문제를 지역 안팎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계비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천막농성도 접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을 믿고 앞장 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사실상 저희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 조합원들이고, 지금도 전국에서 투쟁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알려 나가고 호소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해고자들이 돌아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역사

3/16 정기대대에서 해고자의 신분보장기금 기한을 2년으로 한다는 현장발의 안건이 통과되고 한 달 남짓.

그동안 해고자들은 지도부와 의 간담회나 소식지를 통해 그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진공장에 들어온 시기부터 조합원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던 2015년까지 저희 해고자들이 걸었던 길을 한 번 되돌아봤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

2008년 B지구 설비보수업체인 칠우엠케어에 입사했습니다. 거의 모든 하청업체에서 그랬듯이 “어이?”, “야?”, “야 임마?”가 우리의 이름을 대신했고, 목숨 줄은 항상 옆에 매달고 일했습니다. 임금은 정규직의 반토막도 안 되었고, 식당에서 밥 한 끼 더 먹으면 호출당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분노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12년 10월 비정규직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노조결성을 무기로 임금이나 고용 장사를 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가 진짜로 결성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소문하여 노조결성을 주도한 전 지회장과 이주단지에서 만났습니다. 열심히 해보자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생각이 납니다.

치열했던 현장투쟁

2013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연초부터 소속업체인 현우를 상대로 현안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조합원동지들이 한 치의 거리낌도 없이 사장실에 항의방문 하는 모습에서 “업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교섭 때문에 3월부터 두 달 가까이 사측한테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교섭요구 통보를 하고 교섭장소에 나가면 사측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교섭 당일이나 전날 저녁에 교섭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근 때는 휴가를 쓰고, 야근에는 겨우 두어 시간 자고 나갔는데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골탕을 먹으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첫 교섭 자리에서 사측에게 대놓고 쌍욕을 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

5월에 한국내화 5명의 노동자들이 전로에서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죽음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정몽구는 그 오명을 벗겼다고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겉으로는 경광등을 달고 공장을 요란스럽게 돌아다니는 차만 수 십 대 늘었고, 실제로는 “질서 지키기”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열을 올렸

을 뿐입니다.

7월말로 접어들 즈음 피제이로직스에서 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죽음을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러 업체에서 징계와 형사고소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기죽지 않고 투쟁으로 사측의 탄압에 맞섰습니다. 정규직지회 집행간부들도 열 일 제쳐놓고 우리의 투쟁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기본협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꽃다운 생명들이 살해된 세월호 참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고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자신감이 넘쳐났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해고자 4명이 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여보자는 슬로건을 걸고 임단투에 돌입했습니다. 게릴라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런 우려를 단 방에 날려 버렸습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파업효과를 높이는 전술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투쟁을 했기에 부족하나마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노동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타오르는 자신감을 조직의 강화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은 상경투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자 자본가들은 대대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4조 3교대 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3.5교대를 시행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해고자 2명은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복직투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과 분리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업체 조합원들과 어울렸던 기억은 소중한게 남아 있습니다. 또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연대하며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해고자들이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쟁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